LG-Caltex, 중동의존도 낮춰 다행!

정유회사들 중동 편중 여전히 악재 … S-Oil은 100% 사우디에서 수입

미국-이라크 전쟁 개전이 임박함에 따라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회사들의 원유 수급물량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그동안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중동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으나 아직도 도입물량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산유국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SK㈜는 중동 수입물량이 전체 도입물량의 71%를 차지하며 이중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비중이 25%로 가장 높다.

SK㈜는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된다면 원유 수급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라크의 미사일 발사로 쿠웨이트의 유전이 파괴되거나 미군이 원유 수송로인 걸프만을 봉쇄할 경우 원유수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Caltex정유는 1990년 걸프전 이후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덕에 중동 의존도를 국내 정유회사 중 가장 낮은 49%로 낮췄다.

UAE(36%)로부터의 수입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오만(21%), 사우디아라비아(20%), 카타르(14%)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중동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의 도입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 서아프리카(앙골라·나이지리아·콩고), 남미(에콰도르), 북해 등 다양한 산유국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

현대Oil-Bank는 총 수입물량의 82%가 중동산으로, 역시 UAE 비중이 33%로 가장 높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쿠웨이트 등이 주요 수입선이다.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는 동남아에서 약간을 수입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ARAMCO가 대주주인 S-Oil은 아예 100%의 물량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지만 각 정유회사들은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내륙 국가인 이라크가 원유 수송경로인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과는 수천㎞가 떨어져 있는 만큼 원유 수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며, 다만 수송선의 보험단가 상승 등 가격상승 요인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이라크가 인접국인 쿠웨이트의 유전을 파괴할 시에는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겠지만 미군의 압도적 전력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운송보험료 상승 등으로 가격인상 요인은 발생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원유 수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hemical Journal 2003/03/2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